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 "나는 주원 하나로 충분해" 시키면 다 하는 열정 만렙 주원, 이렇게 웃겼어? 육각형 매력 속에 숨겨졌던 예능 본능 폭주!

2026. 3. 9.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이 지난 7일(토) 공개한 4화에서 배우 주원이 함께 발레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발레 벌떡' 동호회 청일점 회원으로 등장, 멈출 줄 모르는 예능 본능으로 동호회를 초토화시켰다.

<자매치킨>은 취미에 진심, 치킨에 덕심인 수지, 이랑, 민 세 자매가 운영하는 동호인 성지 치킨집에 찾아온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 펼치는 치키타카 케미 토크쇼다.

압도적인 비주얼로 등장해 세 자매와 신입 회원 지예은, 조수연의 설렘 지수를 최대로 높인 주원은 여성 회원들의 거침없는 요구에도 망설임 없이 응하며 예능감을 과시했다. 사극 액션 촬영 중이라는 그는 젓가락 한 쌍만으로 이수지와 역동적인 '쌍칼 액션' 시퀀스를 완성해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 고교 시절 다져진 무용 실력을 바탕으로 고난도 발레 동작 '그랑쥬떼'를 완벽하게 선보여 회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냈다.

주원의 솔직하고 대범한 입담 역시 빛났다. '테토녀'를 좋아하는 '에겐남'이라는 깜짝 취향 공개부터, 연애 시절 지나치게 곧은 'FM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솔직한 토크까지 이어가며 현장을 달궜다. 한편, 지예은이 건넨 파격적인 '댄스 벨트' 선물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석 피팅쇼로 화답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동호회 분위기를 역대급으로 뒤흔들었다.

이날의 백미는 여심을 제대로 저격하는 상황극이었다. 주원은 **"내일 아침에 그냥 가. 내가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잖아"**라는 훅 들어오는 멘트와 필살 애교를 펼치더니,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감미롭게 열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을

종횡무진하는 '육각형 배우' 주원은 <자매치킨>을 통해 그간 숨겨왔던 예능 본능을 유감없이 발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겼다.

쿠팡플레이 예능 <자매치킨>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 회원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